환경문제를 바라보는 불교적 안목의 출발

유 정 길 /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사무국장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비록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하면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교훈을 주는 우화이다. 그러나 이 우화는 몇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첫째로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자기만 이기겠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북이의 심리가, 마치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음흉한 논리를 갖고 있음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토끼가 애초부터 경쟁이 안되는 거북이와 경주를 제의했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근본적으로 경쟁이 안되는 대상을 향해 "너도 노력하면 된다. 네가 게으르니까 안된다."라는 산업사회 생존경쟁의 부정의한 윤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연"이나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당연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근본을 찾아 그 시기의 관습과 "당연"의 논리를 깨려는 노력은 "집착된 잘못된 관념(불교에서는 『相』이라고 한다.)"을 깨고 사물을 여실히 보려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당연의 관념이 있다.

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징그럽고 사악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여우는 교활하다. 돼지는 미련하다. 소는 우직하다. 지렁이는 징그럽다. 등의 관념이다. 실제 남자든 여자든 뱀이 자기 옆을 지나가면 아마 기겁을 하며 놀라는 것이 보통사람의 정서일 것이다. 이러한 관념이 올바른 것일까?

뱀은 생태계내 진화과정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진화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 자체가 혐오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뱀이 사악하다, 징그럽다는 것이나, 여우가 교활하다는 것, 돼지가 미련하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생각, 자신의 집합된 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인간자신의 사회적 관념속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으로 동물과, 식물, 무생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이 특정 동물은 왜 귀엽고, 바퀴벌레는 왜 징그럽고 미울까? 과연 본래 그런 것인가 하는 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연계내에서 본래 예쁘고 징그러운 것은 없다.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는 말처럼,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동물에 대한 편애와 혐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념인 것이다. 편애와 혐오를 지양한 마음상태를 갖을 경우에 훨씬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것을 징그럽다는 마음, 두렵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동물에 대해 공포심과 잔인한 공격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자연과의 잘못된 관념때문인 것이다.

인간중심적 사고로 자연을 바라보는데서 환경문제가 시작된다. 인간중심성은 생태계 순환고리에서 단지 한 영역일 뿐인 인간이 모든 생태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동물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중심의 극복과 생물평등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연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농경제에 참여한 뒤 모든 생물과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로 고뇌하시면서 결국 출가를 하여, 많은 고행과 수행끝에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연기법(緣起法)이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으며, 제행무상(諸行無相, 항상하는 것은 없고), 제법무아(諸法無我, 홀로된 단독자

는 없다)라는 가르침이었다.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가르침은 대단히 단순한 말이지만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연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 모든 사물이 그물망처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큰 나"라는 사실을 모를 때 이것은 바로 스스로 홀로 된 단독자라는 생각이며, 최근에 유전공학의 "노화방지연구"처럼 죽지않으려는 인간의 욕심은 일종의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 있다는 사고의 반영인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망견(妄見)이요 악견(惡見)이며 모두 무명(無名)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중심의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자연과의 관계 왜곡에서 비롯되지만, 둘째로는 상호의존적 세계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인간신체속의 한 세포가 다른 세포와의 연관을 무시하고 무한 증식을 할 때 이것을 암세포라고 한다. 이것은 암세포 자체로 볼 때는 번영이며 발전이지만 곧 인체를 죽이는 것이며,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세포는 전체속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인간의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한다. 그리고 이 세포는 본래의 상태까지 증식된 뒤 증식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계의 생물과 무생물과의 연관을 망각할 때 스스로는 번영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암세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신경세포로의 역할을 할 것인가는 이 연관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이 지구상에 혼자사는 생명체가 아니다.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생명체가 죽거나 파괴되면 인간 또한 죽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연계는 인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파괴에 대응하여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제등하고, 양을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어 가며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관을 시간적으로 확장하면 과거의 자연과 역사, 선조들의 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아울러 미래의 인류, 자손을 위해 그들이 사용할 자연과 가치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확대하면, 보이는 사람뿐 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세계 인류와 모든 생명의 평등을 생각할 줄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연기적 실재의 깨달음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의 세계는 끊임 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될 때 타인과 상의 상존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에고이즘의 나락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 인간소외와 모든 계급, 계층, 민족문제등을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며, 자연 생태계에 적용될 때 오늘과 같은 환경, 생태계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최근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중 가장 돋보이는 연구분야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노화방지(늙지 않음)"에 대한 연구이다. 마치 진시황의 불노초를 연상하는 이러한 노력을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죽지 않겠다는 인간의 노력은 모든 사물과의 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구상에 홀로된 단독자로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비 연기적 행태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고무, 프라스틱, 비닐등 썩지않는 반영구적 물품의 대량생산에 치중해 왔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바로 인류를 생태적 파괴로 이끈 원인인 것이다. 슈마허가 말 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은 공간적 연관속에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시간적 연기(緣紀)속에서는 '썩는 것이 아름답다'는 가르침을 인류는 새겨야 할 것이다. 잘 썩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잘 죽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환경문제를 인류 생존의 위협이라는 차원, 개인의 죽음이라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도 이기심에서 비롯된 대응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파시즘은 이러한 공포심을 파고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인류를 위해 그리고 미래시대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일체감과 연대적 깨달음 … 오늘의 시기에는 이러한 큰 깨달음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